

미술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수업 개선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신동진¹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초등교사들이 미술 교과 수업에서 장애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자체적인 노력과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명으로 2명은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이고 2명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인터뷰하여 교사들의 미술 수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개별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부분을 공유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첫째, 미술 교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종전까지 미술 교과의 일부인 표현에만 집중하던 모습을 벗어나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 셋째,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한 미술 수업을 운영하였다.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을 갖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학교와 수업 연구,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 수업 개선, 교사 교육

1. 모충초등학교, 교사, lightangler@gmail.com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술 교과가 기능 교과라는 오랜 믿음이 교직 현장에 여전히 퍼져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미술 교과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심미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교과를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로 정의한다(교육부, 2015).

각 교사는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급을 운영하지만, 개별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지식이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기능 및 기술, 전문성이 대체로 많이 요하는 예체능 과목은 경력 교사라 하더라도 가르치기 부담스러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박경원, 2011). 특히 미술 교과는 미술과만의 독특한 기능,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교과를 지도할 때보다 훨씬 어렵고 전문적인 교수경험이 요구된다(박우정, 2016). 이러한 부담은 첫째, 담임교사가 미술 교과를 지도하는 경우 지도해야 할 과목이 많아 충분한 교과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점에 기인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한 명의 담임이 과목 대부분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몇 명의 전담 교사가 해당 교과를 지도한다. 담임교사의 경우 많으면 최대 8개의 교과를 지도해야 하고, 수업 연구 외에 학교 구성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교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미술 교과는 실기 지도가 필요한 교과이기에 지도 내용이 개별 교사의 실기 능력과 관련이 있다. 미술 교과는 지식 내용과 동시에 작품을 만드는 실제적인 기능을 지도하기 때문에 교사의 실기 능력 부족은 적극적인 미술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교사의 미술 교과 수업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과정을 살피고,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기관 차원에서 제공되길 바라는 지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 공동체 내의 교사 4명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제 수업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후 실제 수업에서 개선된 부분과 소감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 교과에 대한 태도도 상이하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인 내용을 논하기 힘들지만, 개별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과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을 나누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분석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경원(2011)은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박우정(2014)은 초등 교사의 미술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업 비평을 제시하였으며, 미술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업 비평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그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권혁미, 김정희(2016)는 수업 성찰을 통해 초등 미술 수업의 본질을 탐구하고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미술 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고 더 나은 미술 수업의 구현 의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은영(2014)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내러티브 중심의 수업 비평을 통해 수업에서 비롯된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한 미술 수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선아(2010)는 수업 장학을 통한 미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자기 장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수업 비평 및 자기 장학을 통한 미술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 비평과 자기 장학을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여 내실 있는 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각 교사의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수업 개선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교사 2명과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 2명이다.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구분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하 별도 구분 없이 학습 공동체로 명칭 통일).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 공동체 교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교사로 자신의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편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두 학습 공동체의 미술 교과 연구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 판단된 미술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설명 및 분석, 학교와 미술 영재교육원의 미술 수업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였다. 참여 교사 4명 모두 담임교사로 학급에서 미술 교과를 지도하고 있으며, 1명은 미술 교육 심화를, 3명은 타 심화 과정을 전공하였고, 1명은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2명은 석사 과정 중이며, 1명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구체적인 참여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참여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

성명/성별	경력	담당 업무	전공 심화	담당 학년	학교 급	근무지
A 교사/여	14년	시청각 및 영상자료 관리, 비디오 촬영, 교육방송, 방송실 운영, e학습터, 청소년단체 총괄, 학년 업무	사회 교육	3학년	18학급	동지역
B 교사/남	6년	체육업무 지원 및 대회업무 보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사진촬영, 교과서, 육상부 지도	초등 교육	4학년	24학급	읍지역
C 교사/남	3년	현장체험학습, 환경교육, 계기교육	미술 교육	5학년	6학급	읍지역
D 교사/남	10년	학교스포츠클럽, 어린이 소방대, 재난대응 훈련, 축구부 지도, 학년 업무	윤리 교육	4학년	18학급	동지역

3. 연구의 이해

가. 내러티브 연구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분석하고 미술 수업 경험과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일련의 인간적 경험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에 대해서 쓰는 질적 연구의 한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13).

나.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과정은 1)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확립하기,

2) 연구주체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3) 현장 자료 수집하기, 4) 자료의 주제별 범주화하기, 5)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 부여하기, 6)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순으로 진행하였다(김영천, 2013).

〈표 2〉 연구의 과정

연구 단계	수행 내용	비고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확립하기	연구의 사전 작업 단계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분석
연구주체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연구 참여자 선정	대상자와의 관계,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 판단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설명 및 연구 참여 동의받기
현장 자료 수집하기	연구 대상자 인터뷰, 관련 연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대상자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현장 자료로 활용
자료의 주제별 범주화하기	수집한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 개인 혹은 공통적인 내용을 묶거나 분류하는 과정(코딩)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 부여하기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연구 텍스트로 변환	코딩한 결과물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재검토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결과물을 생성	연구자의 목소리를 하나의 글로 나타내는 과정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미술 교과 연구회 소속 교사 2명과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전에 대상자들의 미술 교과에 대한 생각과 미술 수업의 실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약 9개월 동안 10번 내외의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에,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기에 별도의 ice-breaking 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녹취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다.

사전 인터뷰는 각 교사의 미술 교과 수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과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 수업 경험 중 만족한 수업과 불만족한 수업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잘 된 수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불만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내용을 후속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9개월 동안 진행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후 실시한 사후 인터뷰에서는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수업에 임하는 교사 본인의 태도 변화를 조사하고, 학습 공동체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 본 경험을 질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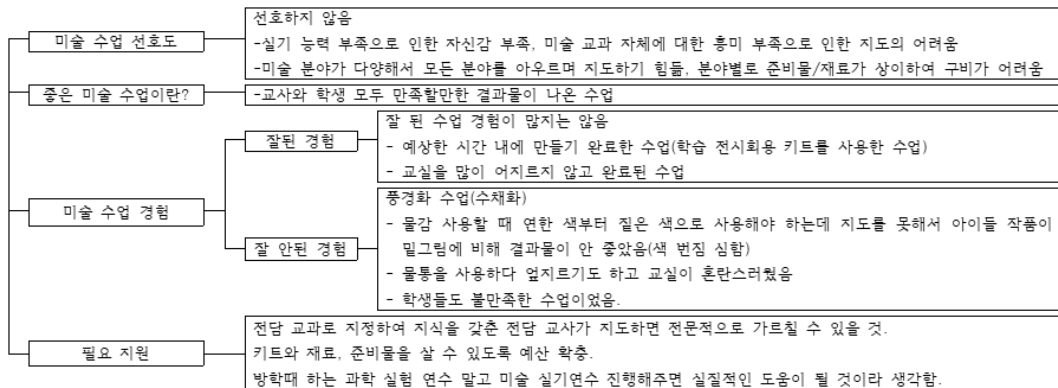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 그로 인한 미술 교과 지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가로 필요로 하는 점을 탐색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하는 교사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인터뷰는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후 1차 코딩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후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2차 코딩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각 인터뷰의 전사본, 1차 코딩 본, 2차 코딩 본 모두 인터뷰 대상자에게 확인을 받아 그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사전 인터뷰 분석

가. A 교사 사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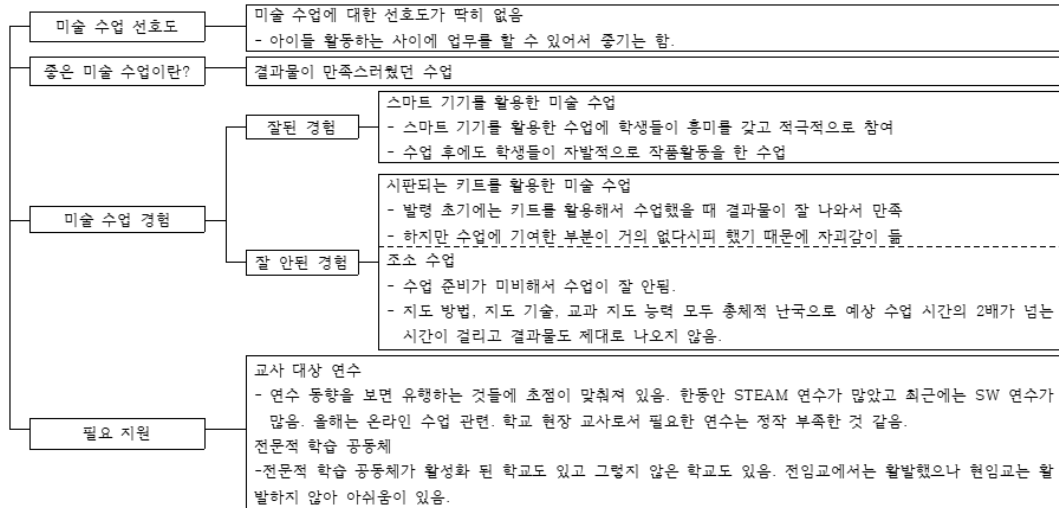


[그림 1] A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A 교사는 교직 14년 차로 사회 교육 심화를 선택하였다. 평소 미술에 큰 관심이 없으며, 미술 수업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은 학생들의 결과물이 만족할 만큼 잘 나오느냐의 여부이며, 미술 교과 전반에 걸쳐 미술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술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역시 자신의 미술 기능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꼽았으며, 평소의 미술 수업은 관련 키트를 구입하여 진행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잘 된 수업 사례를 찾아 활용하는 편이었다. 잘 된 미술 수업 경험은 키트를 활용했던 수업으로 제한된 미술 시간 안에 교실을 많이 어지르지 않고 괜찮은 결과물을 낸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잘 안된 미술 수업은 수채화 관련 미술 수업으로 본인의 채색 관련 기능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여 결과물이 교사와 학생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미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전문적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전담 교과로의 지정, 교육 활동을 위한 키트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실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를 꼽았다.

나. B 교사 사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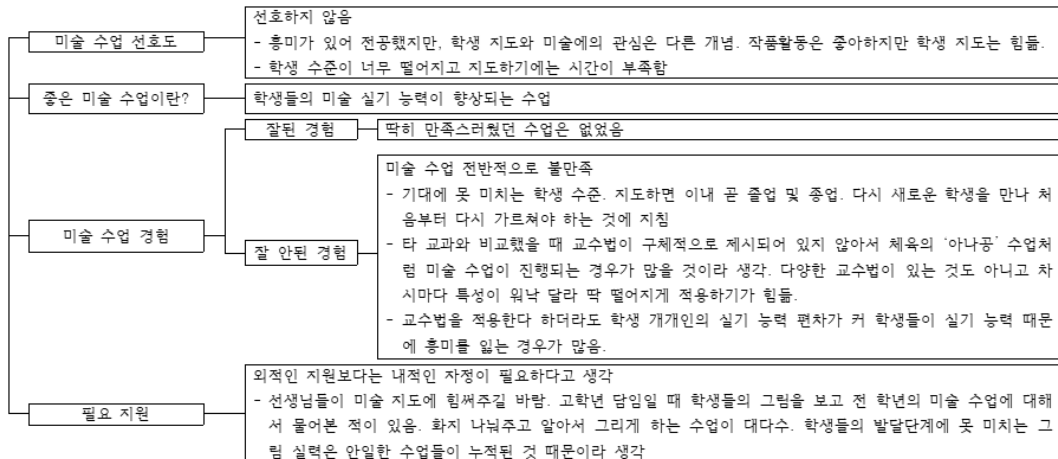
[그림 2] B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B 교사는 교직 4년 차로 초등 교육 심화를 선택하였다. 미술 교과 지도에 대한 선호도는 딱히 없으며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기 바쁘다는 응답을 하였다.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은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던 수업이며,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수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잘 안되었던 미술 수업은 키트를 활용한 수업과 조소 관련된 수업이라 응답하였다. 시판되는 키트를 활용한 미술 수업의 경우 자신이 수업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시피 하여 자괴감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조소 수업은 지도 방법, 미술 실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수업 진행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미술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실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미술 실기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컨설팅, 장학을 통해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C 교사 사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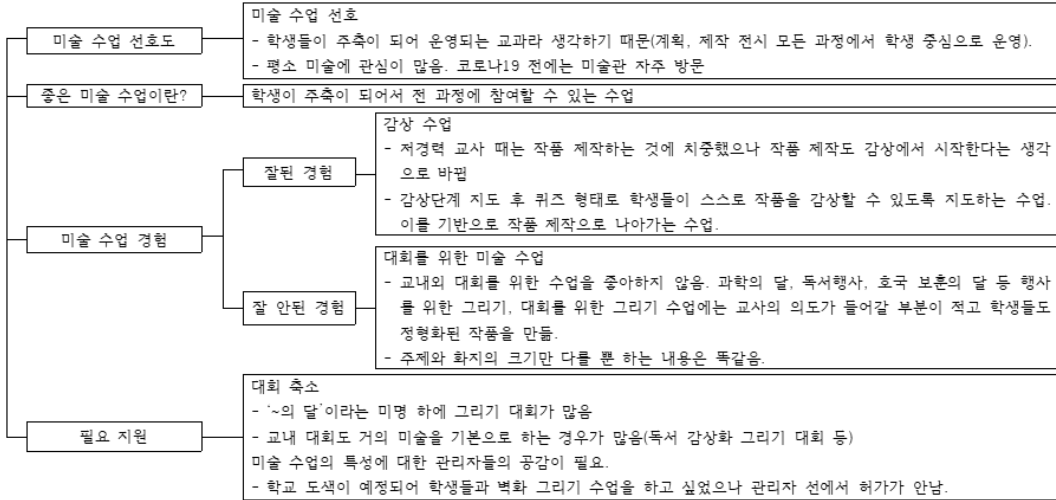
[그림 3] C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C 교사는 교직 3년 차로 인터뷰 대상자 중 유일하게 미술 교육을 심화로 선택하였다. 교육대학교 입학 전 미술 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실기 시험 준비를 했을 정도로 미술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이로 인해 학생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향으로 좋은 미술 수업이란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미술 수업 중 만족할 만한 수업은 없었으며 잘 안된 수업 경험이 대부분이라 응답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 수준, 타 교과와 비교했을 때 교수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교과 특성상 변수가 많은 점을 꼽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외적인 지원보다는 각 교사의 미술 수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술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는 응답을 하였다.

라. D 교사 사전 인터뷰



[그림 4] D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D 교사는 교직 10년 차로 윤리 교육을 심화 전공하였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었으며 학생이 주가 되어 각자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과라 생각하여 미술 교과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좋은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도 이와 연관되어 학생이 주가 되어 수업의 전 과정에 참여한 수업을 좋은 미술 수업이라 생각하였다. 한때 미술 수업은 작품 제작을 해야지만 수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감상 수업을 계획하여 수업한 후 학생들의 작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후로 작품 감상 수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잘 안된 미술 수업의 경험으로는 대회를 위한 미술 수업으로, 각종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리기 수업을 꼽았는데, 학생들도 흥미가 별로 없고 정형화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원활한 미술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각종 교내외 대회의 축소를 원하였다. 또한 미술 수업의 특성에 대한 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하였다. 학교 도색 직전 학생들과 벽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자께 문의했다가 색이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마. 사전 인터뷰 내용 분석

1) 실기에 대한 과도한 의식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다. 교육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심화 전공한 교과도 다르고 교직 경력 또한 다르다.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미술 교과 수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미술 실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몇몇 교사의 경우 미술 실기 능력이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미술 교과는 실기 교과의 하나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대표 되는 주지교과(主知教科: 이성·지성·합리성 따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와는 달리 미술 교과는 기능 교과의 범주에 속하기에 결과물이 작품의 형태로 나오고 교실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작품 간 선호도가 즉각적으로 나오게 된다. 작품에 대한 선호도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술, 작품 구성 방법 등의 실기 능력이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 된 미술 수업의 기준을 결과물에 기반하여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술 교과를 지도할 때 실기 능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학생 작품을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신기한 발상으로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담아 작품을 만든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은 나는 아는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의 작품이었거든요. (중략) 학생의 발상이라든가, 생활화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작품을 교실 안에 전시하려고, 뒤 칠판을 꾸미는데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실기 능력을 위주로 판단하는 모습이 많아요.(A 교사 인터뷰 발췌)

미술 수업은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리는 애들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흥미가 없고. 그래서 평소 미술 시간에 안 해봤을 법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차가 크다면 아예 다 낫설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런데 결국 잘하는 아이는 뭘로 해도 잘하더라고요.(B 교사 인터뷰 발췌)

첫 미술 시간은 언제나 고민이 많아요. 학생 수준이 가늠이 안 되니까요. 경력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면 항상 기대 이하였어요. 나름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면 학원을 안 다녔어도 미술이라는 교과를 3학년 때부터, 미술이 포함된 통합교과를 1학년부터 배웠을텐데 학생들이 진짜 기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동시에 막막한 마음도 들어요.

사람을 그려야 할 때면 맨날 나오는 질문은 ‘선생님 줄라맨(stick man)으로 그려도 돼요?’ 이 질문인데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고요.(C 교사 인터뷰 발췌)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 작품 제작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한때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고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수채화 그럴 때 물감을 어떻게 쓰냐 농도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아는 것과 해본 것은 다르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법 배운 적도 있었어요.(D 교사 인터뷰 발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실기 능력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D 교사의 경우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퇴근 후에 학원을 다녔다고 할 정도로 실기에 치중했던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급을 운영한다. 이 학년·학급 단위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이 담기기 마련이다. 같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하더라도 교실마다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이전까지 각 교사의 미술 수업은 교사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표현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내용이 표현에 치중했기에 학생 평가 영역 또한 표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상물을 표현했는지, 혹은 다른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 영역에 초점을 맞춘 미술 교육의 모습은 교과 간 통합 수업에서도 볼 수 있었다.

통합 수업이 한때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STEAM 이라고 하면서. 그때 주로 많이 했던 것이 Art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지교과 수업에 음악이나 미술을 넣어서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와서 되돌아보면 사실 구색 맞추기 용도로 미술, 특히 그리기를 넣었던 것이었을 뿐이었다 싶은 수업들이 많았어요. Art에 포함된 다른 교과인 음악을 넣자니 아이들이 작곡을 새로 하기는 힘들고 해봤자 개사 정도인데.. 개사하는 수업을 하고 나서도 그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러다보니 좀 미안하지만 만만한게 미술 그리기였죠.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미술은 항상 결과물 그리기에 그쳤던 경우가 많았거든요.(A 교사 인터뷰 발췌)

교과 간 통합 수업을 운영할 때 미술은 학습한 내용을 표현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의 평가 기준도 세부 묘사 등 미술 교과 성취기준의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목표를 정하고 평가에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이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교육과정이 빠르면 5년 길면 10년에 한 번 바뀌었으나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으로 바뀌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성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문을 매년 숙지하기보다는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수업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은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학년 시작 전 새 학년 준비 기간에 연구부장님이 주관했던 교육과정 연수 때 바뀐 점, 강화된 점에 대해서 연수를 들었고.. 미술 교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B교사 인터뷰 발췌)

도덕 교과 교육과정 원문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네요. 미술은.. 그 외에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기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만 봤었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전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말하고 나니 부끄러워지네요.(D교사 인터뷰 발췌)

교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미술 교과 교육과정 전체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교사는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에 소속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육청의 기본 방향, 학교 교육의 지향 등을 포함한 교육 목표에 대한 연수 자료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각 학교가 운영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 동안 교육과정의 바뀐 부분과 교육청의 중점 교육 방향에 대한 연수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급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그 외의 학습 공동체 참여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2015 미술

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수업을 각자 개발해 수업에 적용해 보는 프로그램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운영한 미술 수업 사례를 소개하여 미술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가.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개요

학교 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9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였다. 사전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크게 2015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수업 개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사례 공유 및 적용의 두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사가 미술 교과 지도에서 놓쳤던 부분을 찾고 적용하며,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면서도 학생의 흥미와 교과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미술 수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사들의 흥미도 고려하여 실제 기기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과정을 구성하여 9개월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나. 2015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수업 개발

2015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목표는 아래와 같다(교육부, 2015).

초등학교 미술에서는 미술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자신과 주변 대상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을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2)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4)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미술 교과의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의 세 부분이다. 체험의 핵심 개념은 지각, 소통, 연결이고, 표현의 핵심 개념은 발상과 제작이며, 감상의 핵심 개념은 이해와 비평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 영역 중 표현에 치중하여 미술 수업을 생각하는 유형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의 이유는 1장에서 서술하였듯 미술 교과를 기능 교과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오랜 믿음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교육과정 전문을 훑아보는 것은 교사들의 흥미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이론적 내용에 치중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 자료를 만들어 연수 형태로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다. 해당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체험, 표현, 감상 중 체험과 감상 영역에 대한 미술 지도 방안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 후 각자의 수업지도안을 공개하여 학습 공동체 교사들이 같이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 등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추가해 지도안을 완성한 후, 각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후에 수업 과정과 학생의 반응, 교사의 느낀 점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 과정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며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이후의 수업에서도 이를 유념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교사는 의식적으로 평소 미술 시간에 주로 활용하지 않았던 영역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미술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 수업에서도 미술 교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었다.

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사례 공유 및 적용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정규수업이 운영된 해였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해왔던 미술 수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자 및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소개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의 장단점,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스마트폰 앱 활용 방법 및 수업 사례를 소개하여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학습 공동체에서 ‘flip a clip’, ‘Quiver’, ‘Stop Motion’, ‘Tilt Brush’, ‘Blocks by google’ 앱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하였다.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지, 기능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없어 교사와 학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의 앱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활동의 결과물이 디지털 파일로 기록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공유가 쉽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의 미술 교육을 체험하는 목적으로 VR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 미술 수업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차후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미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나온 예시작품을 벗어나 더 많은 작품 감상 및 제작, 활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술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후 실제 수업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보았으며, 디지털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동료 평가,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술 교과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사후 인터뷰 분석

가. A 교사 사후 인터뷰

학습 공동체 참여 소감	미술 교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음. 미술 외에도 다른 교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
미술 교과 인식 변화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으니 수업이 한결 더 편해짐.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더 주게 됨.
미술 수업 경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그 전보다 편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업이 좋았음. 학생 평가의 기준이 교사에서 친구가 되니 학생들도 흥미있어 함.
좋은 미술 수업이란?	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마음껏 표현하는 수업. 기술적 측면이 아닌 학생이 본인의 의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미술 수업.

[그림 5] A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A 교사는 사전 인터뷰에서 미술 교과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본인의 실기 기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도 실기 결과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미술 교과의 다른 영역 수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이 더 편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의사소통 기능이 활발하게 적용된 모습에서 앞으로 미술 교육의 방향을 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나. B 교사 사후 인터뷰

학습 공동체 참여 소감	새로운 미술 수업 사례를 알게 되어 만족함.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음.
미술 교과 인식 변화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미술이 아닌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교과라는 생각이 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수업이 미술 수업이라 생각함.
미술 수업 경험	온라인 사이트(Google Arts & Culture)를 활용한 감상 수업. 기존의 감상 수업은 보통 단순 검색 결과를 학생들에게 프린트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세밀한 부분들까지 관찰 가능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음.
좋은 미술 수업이란?	교육과정에 부합하여 표현, 감상 등 미술의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그림 6] B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B 교사는 미술 수업 때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등 미술 교과 지도에 대해 큰 애착이 없었던 교사였다. 학습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술 수업 사례를 알고 다른 교사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부분에 만족하였다. 자신의 잘못해 왔던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도 작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교과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 C 교사 사후 인터뷰

학습 공동체 참여 소감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수업 사례들을 알 수 있었음.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음.
미술 교과 인식 변화	그래도 기능 교과이기에 학생들의 미술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함양되어야겠지만 실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좀 버림.
미술 수업 경험	색이 주는 느낌을 지도하기 위해 학습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된 어플을 사용하여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여 수업에 더 집중한 모습을 보임.
좋은 미술 수업이란?	표현이든 감상이든 학생의 미술적 능력이 향상되는 미술 수업.

[그림 7] C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C 교사는 자신의 미술 수업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미술 교육 심화를 전공하였기에 교사 개인의 실기 능력이 우수한 편이었고, 학생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기에 미술 수업에 열정을 잃고 있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학생이 흥미를 가질만 한 수업 사례를 알고 적용하며, 실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체험과 감상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며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도 실기 능력을 포함한 학생이 학생의 미술적 능력이 향상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기준이 바뀌었다.

라. D 교사 사후 인터뷰

학습 공동체 참여 소감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음. 미술 교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됨.
미술 교과 인식 변화	놀이의 도구라 생각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보고 매체가 다양해졌고, 학생의 흥미에 부합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
미술 수업 경험	플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수업을 지금까지는 교과서 귀퉁이를 활용했는데 스마트 기기의 어플로 만들어 배경음악까지 입히니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
좋은 미술 수업이란?	학생 주도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업.

[그림 8] D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D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대회 때문에 자신의 의도한 미술 수업을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감상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감상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학습은 학습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이를 위한 도구라 생각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알아가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답하였다.

마. 사후 인터뷰 내용 분석

사전 인터뷰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표현 수업에 치중하여 미술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각 교사의 실기 능력에 따라 미술 수업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아닌 변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년·학년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을 운영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은 몇몇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첫째, 미술과의

다른 영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술 교과서의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표현에 치중했던 미술 수업에 벗어나 체험, 표현, 감상이 어우러지는 미술 수업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미술 교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였다. 단순히 한 영역인 표현에만 치중하여 반제품인 키트를 구입하거나 교사 커뮤니티에서 결과물이 잘 나온 내용을 내려받아 수업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미술을 체험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미술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과서에의 집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교과서는 성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소재를 활용한 수업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만족하였다. 미술은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그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으며 이러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소재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미술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다. 수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업 비평이 아닌,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흔치 않았으나, 학습 공동체를 통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다른 교사들이 모여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 수업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공동실천을 하는 학습조직인 학습 공동체의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고 이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좋은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제품인 키트나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결과물을 만든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미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 학생 주도로 자신의 의도를 미술적인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잘 된 수업이라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자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타인/사회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사회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과가 미술 교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응답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우선 현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과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사들이 미술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변화 및 그들의 수업 개선 과정을 내러티브 기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미술 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능 교과라는 측면에 몰두하여 미술 교과의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표현에 치중한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사전 인터뷰 결과 특정 교사들은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앞에서 자신 있게 지도를 하지 못하고, 한 교사는 사설 미술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실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미술 교과의 한 영역인 표현 부분에 치중하여 미술 교과를 이해한 모습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운영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많아 교사가 의도한 미술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후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미술 교육과정의 체험, 표현, 감상 전 영역에 걸쳐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체험과 감상 수업 준비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 협의를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 적용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술 교과 수업을 개선할 수 있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의 수업 방법만을 고수하여 학급을 운영하기 힘든 해였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개별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난 소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앱, 도움이 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한 수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 연구·공동 실천을 추구하는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자신의 수업안을 공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구상하고 운영하였다.

셋째,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한 미술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미술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수업의 결과물에 치중한 수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미술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을 갖고,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사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미술수업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미술 수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가 수업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 학교 구성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교과를 지도해야 하기에 숙지해야 하는 교육과정도 많다. 최근 교무업무지원팀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담임의 업무부담이 줄고 있다. 담임의 업무부담 저감은 교과 연구로 이어진다.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각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을 구안하고 실행할 수 있기에 교사의 교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불필요한 대회 축소를 통해 교사의 의도를 반영한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년 동안 ‘과학의 달’, ‘가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등의 이름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많은 대회가 열린다. 이러한 대회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 그리기 대회이다. 대회의 취지는 좋지만,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교사가 구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의도가 반영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대회는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시류에 휩쓸리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때, ‘STEAM’으로 대표되는 교과 간 통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외부적인 통합에 치중하여 개별 교과의 핵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학생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업을 구안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 논문 투고일: 2021. 01. 18. ※ 논문 수정일: 2021. 02. 17. ※ 게재 확정일 : 2021. 2. 25.

〈참고문헌〉

- 권혁미, 김정희(2016). 수업 성찰을 통한 초등미술수업의 본질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45, 35-61.
- 교육부(2015).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
- 김선아(2010). 반성적 교사: 미술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 **미술교육논총**, 24(1), 27-49.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박경원(2011). 초등학교 저 경력교사의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71-94.
- 박우정(2014). 초등교사의 미술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 비평.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7, 95-125.
- 박우정(2016). 수업실습: 초등예비교사의 미술수업 경험 분석. **미술과교육**, 17(4), 107-131.
- 이은영(2014). 내러티브 중심 수업 비평을 통한 미술 수업 장학 개선 방안. **조형교육**, 52, 263-290.

〈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Process of Improvement in Art Classes

Shin, Dongjin¹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obstacles during art classes and efforts to overcome these as well as observe teachers' chang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se classes.

The participants included four teacher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careers. Two of them were members of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in their schools and the other two participated in PLC individually. I conducted PLC about art classes for them, and analyzed their chang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these classes during an interview. Their experiences in their endeavors to improve their art classe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Accordingly, I hope teachers with similar difficulties can refer to this record.

Through this study, participants first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art subject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expression, which much emphasis is placed on in the art curriculum, an understanding of other areas of the art curriculum. were explained. Second, the quality of the class was improved b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realized their educational goals by teaching their students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but also by utilizing materials that could attract students' interests. Third, the participants conducted art classes that focused on the results as well as processes. Through these art classes, students are afforded creative thinking experiences, appreciate the work of art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standards, which are generated through projects, and enjoy art culture in their lives.

Keywords : School and Class stud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lass improvement

1. Teacher, Mochung elementary school, lightangler@gmail.com